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7.(토) 배포 시 배포 2026. 11. 7.(토)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 ①전국 산란계 농장 정밀검사 주기 단축(2주 1회) 및 폐사체 검사, ②경기·충남 산란계 농장 백신접종반 출입제한(7일간), ③가금 유통 관리 등 방역 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7일(토), 경기 여주시 소재 산란계(26만 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11월 7일(토)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이번 발생은 경기도 여주 산란계 농장에서 농장주가 닭 폐사 증가로 여주시에 신고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1월 7일(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6/'27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발생현황('26.11.3.~) : 2건(경기 연천, 전남광주 장흥)

11월 3일 가금농장에서 첫 발생 이후 단기간(4일간)에 3건이 확인되고 야생조류에서도 6건의 검출사례가 확인되었다.

발생지역도 확대되고 야생조류를 통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위험지역 농가, 대규모 산란계 농가와 밀집단지 등을 중심으로 소독, 예찰, 점검 등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11월 7일(토)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 강원, 충북 소재 닭 농장·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축산차량 등에 대해 11월 6일(금) 24시부터 11월 7일(토)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 38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대책 강화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 발생 관련 방역지역(~10km) 내 전 축종 일제검사 후 보호지역(~3km) 내 농장은 5일 주기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38호)에 대해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특별관리한다.

둘째, 전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분기 1회→2주 1회)하고, 산란계 밀집단지(14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실태 점검 및 농가별 폐사체 검사를 매주 실시한다. 또한 기존 20만수 이상 대형 산란계 농장 뿐만 아니라 종계·원종계·원종오리·밀집사육단지 등에 대해서도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출입통제를 강화한다.

* (출입절차) 통제초소 설치 대상 농장은 **3단계(거점소독시설 → 통제초소 → 농가) 소독 완료 후, 해당 농장 출입 가능**

셋째, 경기, 충남 지역의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11월 7일(토) 09시부터 11월 14일(토) 09시까지 7일 동안 백신접종반 출입을 제한하고, 전국 산란계 농장 알 환적장 적정 운영여부를 긴급점검*(11.5~16)하는 등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지방정부는 GPS 차량관제(KAHIS), 농장 CCTV 확인 등을 통해 농장별 환적장 적정 운영 여부 긴급 점검 추진(11.5~11.16)

넷째, 노계(산란계·종계 등)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산란계·종계 노계는 도축장으로만 출하하고, 전통시장 및 타(他) 가금사육 농장(노계 전문 사육농장 등)으로 이동을 금지한다.

* 산란계·종계(육용·산란·토종 등) 노계는 도축장 외 이동승인서 발급 금지

다섯째,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주간 「전국 일제 소독 주간」으로 지정하여 가금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도록 한다.

여섯째,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농장과 야생조류에서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의심축 발견 시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토록 방역수칙을 집중 안내한다.

* 전국 지방정부, 생산자단체, 시군별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지도·홍보

4. 당부사항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경기 지역 가금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된 만큼 검역본부와 경기도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하여 발생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미흡 사항을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정부는 11월 초에 불구하고 가금농장에서 3건이 발생하고 있어 야생조류를 통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정부와 생산자단체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가금농장 및 종사자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과거 사례를 되짚어 볼 때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의 가금농장에서도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각 지방정부에서는 야생조류 발생 상황 등을 관내 농가들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추가 피해가 없도록 소독·예찰·점검 등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책임자	과 장	황성철 (044-201-2551)
		담당자	사무관	이주원 (044-201-255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